

베트남 투자설명회

祝 辭

2018. 4. 18(수)  
Lotte Hotel  
Crystal Ballroom

금 융 위 원 장  
최 종 구

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우선, 오늘 베트남 재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베트남 투자설명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서  
축사를 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베트남 재무부 덩 띠엔 중(Ding Tien Dung) 장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하노이에서 장관님과 회담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위엔 부 뚜(Nguyen Vu Tu) 주한 베트남 대사님,  
위엔 씨 히엵(Nguyen Sy Hiep) 총리실 차관님,  
쩐 똌 중(Tran Van Dung) 국가증권위원회 위원장님,  
재무부 관계자 여러분,

행사를 준비해 주신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님,  
김동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은 지난해 6.8%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10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실업률도 2%대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억명에 가까운 인구 중 60% 이상이 생산가능인구일 정도로  
향후 성장 잠재력 또한 높은 국가입니다.

제가 지난 3월 하노이를 방문하고 느낀 것은  
베트남의 성장이 단순히 숫자로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놀랍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화할 때 언제나 전해졌던 베트남 국민들의 자부심과  
도로를 가득 채운 차량들로부터 느꼈던 역동성,  
그리고 베트남 당국 분들로부터 느껴진 식견과 통찰력 등  
이 모든 것들이 오늘의 베트남을 있게 한 요소이며,  
베트남의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역시 6-70년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 9위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압축 성장의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추진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의 확대 개편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영('97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01년) 등을 통해  
기업과 금융부문의 부실을 정리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Basel III,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기구(CCP\*),  
법인식별기호(LEI\*) 도입 등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복원력을 강화하기 위해  
G20와 FSB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금융규제들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 CCP : Central Counterparty  
LEI : Legal Entity Identifier

한국은 베트남이 필요로 할 경우  
언제든지 이러한 한국의 구조조정과 금융시스템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의 경험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한-베트남 금융협력포럼에 참석하여  
금융분야의 신남방정책을 구현하는데 있어  
베트남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국의 금융협력은, 조금 전 언급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한국 금융회사들은  
과거 한국경제의 비약적인 성장 과정에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 등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1997년과 2008년 경제위기 당시  
부실기업과 부실자산 정리 등  
기업·금융산업 구조조정 노하우를 축적한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한국 금융회사 점포가 진출해 있는 국가입니다.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금융회사들은  
현지에 위치한 한국계 기업, 교민과 현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과거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베트남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3월 금융위원회는 베트남 중앙은행과  
핀테크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양국은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베트남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부실자산 정리, 금융회사 구조조정, 핀테크 등 관련  
교육·훈련 연수도 꾸준히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인적·물적 교류는  
향후 한국과 베트남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의 금융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과 베트남은 오늘날 경제·사회를 비롯한 전반의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25년 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당시**

양국간의 관계가 이 정도로 가까워 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결코 단기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년간 함께 노력해온 결과이며,  
양국간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기반이 되었기에  
비로소 오늘날의 돈독한 양국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5년 후의 양국 관계를 그려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양국의 관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함께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에게 이익이 돌아온다’\*는  
말이 있듯이,  
투자자와 기업이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이번 투자설명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양국이 상생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